

구역 예배 교안 2025.03.22

1. 신앙고백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2. 찬양과 경배	뒷면의 찬양 또는 준비해 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성령님의 크신 임재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3. 기도	다함께 구역예배와 모임을 위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인도자가 마무리 기도를 드립니다.(2번 찬양과 경배와 3번 기도는 연결하여 진행)
4. 말씀	본문: 로마서 15장 14-21절 제목: 복음의 제사장 직분
5. 질문과 나눔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닫게 된 것이나 결단한 것이 있으면 나누어 봅시다.
6. 증거	1) 각 태신자와의 관계맺기 현황과 기도제목 나눔. 2) 전도 대상자를 생각나게 하시며, 만나게 하시고, 전도가 되도록 기도. 3) 구역 결석자, 구역모임 결석자에 대한 관심과 기도.
7. 치유와 회복의 시간	1) 각자의 긴급하거나 중요한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2) 치유집중기도 - 치유를 위한 집중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먼저 그를 위해 다함께 기도 3) 문제를 맡기며 기도 - 서로 나누는 기도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 4) 올 한해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 5) 교회와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 6)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7) 리더가 축복하며 마무리기도
8. 공지사항	
9. 주기도문	

복음의 제사장 직분 / 롬15:14-21

제사장 직분은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모세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의 주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저들의 배척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약 제사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흠 없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방인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이방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당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당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회심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결국 회심과 성화와 사명을 위한 헌신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바울이 감당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헌신한 것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순간부터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그대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불신자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구역과 소그룹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불신자를 회심시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구원 받은 자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선 다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주의 날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날이 이르기 전에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 사역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 사실을 확신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경배와 찬양♫

521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 253)

신중 복음기, 1919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눅 13:24) TELL ME THE STORY: 8.7.8.7.8.8.REF. J. R. Sweney(1837-1899)

조금 빠르게

1.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2.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큰 문으로 들어가
 3.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생명의 길로 갈지라도 그 멸망으로 끝나니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의 길로 감시다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 짐을
 세상 험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하나 없이 벗어 놓고 힘써서 들어감시다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의 길로 감시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후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 감시다

♫경배와 찬양♫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작자미상

예수전도단 역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 오 - - 주님 -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 정 -

나를 주님 앞 - 에서 멀리 하거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

그 구원의 기쁨 -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

구역 모임 교안 2025.03.22

1. 아이스 브레이크	<p>*눈치게임: 모인 사람의 숫자만큼(예:5명이 모였으면 4번까지) 서로 눈치를 보면서 일어나거나 번호를 외치며 손뼉을 치는 게임입니다.</p> <p>*별칭 해당자: 마지막까지 번호를 외치지 못하거나 일어나지 못한 사람, 동시에 같이 외치거나 함께 일어나는 사람</p>
2. 찬양과 경배	<p>뒷면의 찬양 또는 준비해 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시간 성령님의 크신 임재를 기대하며 찬양합니다.</p>
3. 기도 (통성으로)	<p>다함께 구역예배와 모임을 위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하고 인도가 마무리 기도를 드립니다. (2번 찬양과 경배와 3번 기도는 연결하여 진행)</p>
4. 은혜의 나눔	<p>한 주 동안 은혜 받은 내용이나 응답받은 기도제목에 대해서 구역 식구들 앞에서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p>
5. 말씀의 나눔	<p>본문: 로마서 15장 14-21절 제목: 복음의 제사장 직분</p>
6. 질문과 나눔	<p>1)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음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헌신해 오셨습니까? 열매 맺은 경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p> <p>2) 앞으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헌신할 생각입니까? 다 함께 행복 모임과 온 가족 참여 예배와 관련하여 자신의 계획과 결심을 나누어 봅시다.</p> <p>3) 말씀을 듣고 새롭게 깨달은 것과 결단한 것을 나누어 봅시다.</p>
7. 증거	<p>1) 각 태신자와의 관계맺기 현황과 기도제목 나눔.</p> <p>2) 전도 대상자를 생각나게 하시며, 만나게 하시고, 전도가 되도록 기도.</p> <p>3) 구역 결석자, 구역모임 결석자에 대한 관심과 기도.</p>
8. 치유와 회복의 시간	<p>1) 각자의 긴급하거나 중요한 기도제목을 나눕니다.</p> <p>2) 치유집중기도: 치유를 위한 집중 기도가 필요한 분이 있으면 먼저 그를 위해 다함께 기도</p> <p>3) 문제를 맡기며 : 서로 나눔 기도제목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p> <p>4) 올 한해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기도</p> <p>5) 교회와 두 분의 원로 목사님과 담임목사님을 위한 기도</p> <p>6) 구역의 활성화를 위해</p> <p>7) 리더가 축복하며 마무리기도</p>
9. 광고 및 주기도문	

복음의 제사장 직분 / 롬15:14-21

제사장 직분은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모세의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의 주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바울은 처음에 동족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저들의 배척을 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구약 제사에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은 흠 없는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이방인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이방인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구원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이방인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당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감당한 복음의 제사장 직분은 회심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결국 회심과 성화와 사명을 위한 헌신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바울이 감당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헌신한 것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순간부터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역은 불신자들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이 그대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불신자가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불신자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구역과 소그룹으로 또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불신자를 회심시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구원 받은 자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선 다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주의 날에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날이 이르기 전에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 사역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주님이 함께하시기에 외롭지 않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 사실을 확신하고 헌신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경배와 찬양♫

521 구원으로 인도하는 (통 253)

신중 복음기, 1919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눅 13:24) TELL ME THE STORY: 8.7.8.7.8.8.REF. J. R. Sweney(1837-1899)

조금 빠르게

1.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2.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큰 문으로 들어가
3.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생명의 길로 갈지라도 그 멸망으로 끝나니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의 길로 감시다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 짐을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하나 없이 벗어 놓고 힘써서 들어감시다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의 길로 감시다
한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후렴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 감시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의 길 감시다

♫경배와 찬양♫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작자미상

예수전도단 역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 오 - - 주님 -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 정 -

나를 주님 앞 - 에서 멀리 하거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

그 구원의 기쁨 -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